

News

청년·중저신용자 비중 높은 인뱅, 취약차주 채무조정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 새출발기금 동참하고 특별법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 코로나19 원금상환유예 특례에 따른 원금상환 유예 조치도 실시 중
취약 차주를 위한 금융지원에는 적극 참여 의지...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아직은 이자 감면 및 원금 탕감 등 지원에 참여할 계획 없다는 입장

4억 미만 주택 '변동→고정' 금리로...수도권은 '그림의 떡'

뉴스1

당정, 올해 안심전환대출에 우선 25조원 투입 예정... 내년 20조원을 더해 총 45조원 지원... 올해에는 지원대상을 4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
그러나 최근 집값의 단기 급등으로 4억원 미만 주택으로 대상 제한하면 소유자 거의 대부분이 혜택 볼 수 없어... 사실상 지방 아파트와 수도권 일부 빌라 및 다세대주택 국한 예상

신규사업 정체, 빨라지는 디지털 전환...시중은행 인력구조 '고심'

에너지경제

하나은행,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들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 직급 및 연령에 따라 24~36개월치 평균임금 수령
다른 시중은행들도 특별퇴직을 위해 노사 합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반면 IT부문 중심으로 신규 채용은 확대

신한금융투자, 여의도 사옥 6395억에 매각키로

뉴시스

신한금융투자,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을 이지스자산운용에 매각하기로 결정... 매각가격은 6,395억원으로 이달 말까지 매각 완료 예정
이번 계약은 매각 후 현 사옥을 그대로 임차해 사용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진행... 늘어난 자본으로 다양한 사업부문에 활용한다는 방침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지난달들어 폭증...정책효과 통하나

이투데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건수, 올해 초 3만 건 수준에 머물러있다가 지난달 들어 7만 건 웃돌아... 4월 39,795건, 5월 44,879건, 6월 75,946건으로 증가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는 하반기에도 4세대 전환 실손 판매 설계사에게 최대 700% 수준의 시상금 걸어... 당국 정책효과가 시장에 통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기대감 비쳐...

'헬스케어 플랫폼 만들자'...부업으로 눈돌린 보험사

이데일리

NH농협생명과 라이나생명, 최근 금융감독원에 헬스케어 관련 부수업무 신청... NH는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라이나는 플랫폼 운영을 통한 판매업
대부분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내용 골자... 보험영업 포화상태에 새로운 먹거리 절실한 상태

파생증권시장서도 '채권'이 최고...몸집 불리는 ELB

아시아투데이

올해 6월 한달간 국내에서 발행된 ELB 잔액은 총 1조 5,436억원으로 집계... 올 1월 대비 3,000억원 넘게 불어난 규모
최근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 높아져 ELB 전성기... 주식 시장 하락세에 ELS에 대한 인기가 약세에 접어든 점도 ELB 성장에 영향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오리무중'...증권가 "일단 준비중"

이데일리

정부,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나 실제 도입 예정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 개정 작업 미지수
업계, 불확실성이 크다는 목소리 제기... 우선은 준비하던대로 개별적인 전산 작업 진행 중...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포탈 오픈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